

연임 허용 않았던 민심...이번에는?

6·13 지방선거 표발 점검

■ 곡성군수

곡성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유근기 현 군수, 민주평화당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 정의당 박용두 곡성교육지원청장 대 표가 출마표를 던졌다.

지역정기에서는 유 군수가 한발 앞서 있다는 분석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영화 '곡성'을 통해 곡성을 전국화한 공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곡성은 좀처럼 군수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그동안 여섯번의 군수 선거에서 고현석 군수만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민선 초대 조형래 군수는 새정치국민회의 고현석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고, 고 군수는 재선에 이어 3선에 도전했으나 조 전 군수와 리턴매치에서 78표차로 지지당했다. 4년 뒤 선거에서는 조 군수가 무소속 허남석 후보에게 패하면서 3차례 연속 연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유 군수의 재선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유 군수에 맞선 조 전 의원은 도의원 재선과 군의원을 역임, 풍부한 의정활동으로 바둑 민심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감점이 있다. 민노당 후보로 2차례 전남지사 출마 경험이 있는 박 대표는 농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사회 정의 실현에 헌신한 경력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유근기 후보는 미래곡성의 모습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웃음이 넘치는 곡성 ▲자연생태교육의 메카,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 곡성 ▲도시민이 찾아오는 살기좋은 자연힐링 곡성 ▲행복지수 1위,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곡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특화농업 곡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차마을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트램 설치, 옥과권 공촌산업단지 조성, 석곡 흑돼지 6차산업 특화 사업 등 권역별

■ 곡성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름(나이)	유근기(55)	조상래(60)	박용두(49)
주요경력	곡성군수	전 전남도의원	곡성교육지원청 대표
주요공약	-문화관광 누이드는 경제 활성화 -건강 100세 누리는 장수프로젝트 -자연인문교육 메카 농촌유학센터 건립 -심장강 애교센터 건립 -농업사랑받는 가치창출 영농 실현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세계적 생태·힐링 관광지 조성 -유치원서 대학까지 교육 책임 -투명한 청의 실용 행정 -복지사각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군민공론화·균형발전위원회 신설 -40세 이상 농민 종합검진 지원 -청년 지역 정착 수단 50만원 지급 -농업회의소 설립, 협치농정 실현

민주 유근기-평화 조상래-정의당 박용두 출사표 석곡 흑돼지 특화·업무 추진비 공개 등 공약 내놔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놔. 또 곡성 전역을 자연생태교육의 메카로 조성하는 '영유아 꿈놀자 지원센터'와 자연인문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해 광주 등 도시민들이 귀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0세 삶을 위한 어르신 전용복합공간 건립,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100% 지원, 농업인화과 건립,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평화당 조상래 후보는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6차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를 위해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반영하는 곡성군 미래농업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회관 신축 등을 약속했다.

또 섬진강을 따라 관광·힐링할 수 있는 물레길 조성, 석곡 흑돼지·압록 매운탕·옥과 한우 등 특화 먹거리 지원으로 세계

적 맛집 육성, 중·고교생 교육 전액 무료 지원, 중국·일본 문화체험 및 홈스테이 교류 확대,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여성 행복 실현을 위한 여성화과 건립, 곡성군립 산후조리원 운영 등 투명한 행정과 복지사각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공약했다.

정의당 박용두 후보는 군수 업무추진비와 예산·재정정보 실시간 정보공개, 선심성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하도급 내역 투명 공개 등을 공약했다. 또 군민공론화위원회와 곡성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군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주기 주치의 제도를 강화하고 40세 이상 농민 고품격 종합검진 지원, 마을경로당 통합 급식센터 운영, 당뇨·아토피 치료마을 조성, 100억원 기금 조성 장학재단 설립,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 지원, 농업회의소를 통합 협치농정 실현, 농작업 대행 협동조합 육성 등도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민주 광주시의원 후보 12명 선출

8곳은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광역의원 경선 선거구 12곳의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선거구 후보로 동구1 이홍일 전 북구의원, 서구1 장재성 서구의원, 서구2(여성선거구) 정순애 전 서구의원, 서구3 송형일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서구4 황현택 서구의원이 결정됐다.

또 남구1 김용집 전 광주시의원, 남구3(여성선거구) 임미란 전 조선훈 교수, 북구4 조석호 전 북구의원, 광산1 김익주 전 광산구의원도 후보로 뽑혔다.

광산3 김학실 전 KBC광주방송 아나운서, 광산4(여성선거구) 김광란 전 광산구의원, 광산5 이정환 전남대 겸임교수 등도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을 치른 12개 선거구 중 8개 선거구에서 전·현직 시·구의원이 승리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8~29일 권리당원 100% ARS 투표로 치러졌다.

경선결과는 48시간 동안 재심청구 기간을 거친 후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으면 1위 후보들을 민주당 공직 선거후보자로 확정한다.

나머지 8개 선거구는 지난 13일 민주당이 단수 공천을 통해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

단수공천 선거구와 후보는 동구2(박미정)·남구2(김점기)·북구1(박재신)·북구2(이경호)·북구3(신수정)·북구5(김동찬)·북구6(김나운)·광산2(정무창)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시의원 후보 중 여성성은 6명이나 되고 현직변호사, 방송인, 마을운동가, 시민단체 출신 등 다양한 직군의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며 "여성과 정치신인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 기초의원 후보자 59명 중 51명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여성 후보는 모두 12명(23.6%)이며, 정치신인은 20명이 포함됐다. 기초의원 추가 공천에 대해서는 각 해당 선거구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향후 추진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13 선거 현상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김성환 평화당 동구청장 후보 예비등록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30일 민주평화당 동구청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김 후보는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려 한다"며 "지난 2년간 동구를 발전하고 있는 곳으로 만들었고 재선이 된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예술도시, 모범도시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동안 도시개발·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내에 대폭 추진됐고 총장축제, 남광주야시장, 달빛길음악회, 미술관 오디세이 등 문화관광 콘텐츠가 개발됐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과 모바일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동구 두드림' 앱을 개발해 개방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김삼호 "상대 후보 꺾힐 언행 삼가야"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는 지난 30일 '당원과 시민의 높은 식견을 믿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축제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유력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이어지며 연일 근거없는 이야기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봉근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의 지지선언은 실망스럽다"면서 "함께 경선을 치를 상대 후보자를 '불량 후보'라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언행은 중앙당의 검증과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며, 광산구민이 바라는 정치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남, 송갑석 후보와 5·18민주묘지 참배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30일 같은 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월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좋은 일자리, 안전한 삶이 좋은 서구와 광주 민주·인권도시 세계화를 위한 518 역사문화·관광벨트구축을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구를 민주주의의 심장으로서 광주 미래세대를 위해 꼭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면서 "서구 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계획으로 삶이 향상되는 자치행정도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교육문화도시, 쾌적한 환경도시, 다양한 상상전력의 경제도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률, 평화당 목포시장 예비후보 등록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평화당 소속 박홍률 목포시장이 30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6·13지방선거 목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도 1호선의 상징성을 활용해 시작적인 목포시와 총착점인 신의주시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남북교류는 우선 수산도시 목표의 장점을 살려 수산물 교류와 문화차원의 교류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는 체류형 관광도시, 국제해양관광도시 조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활기찬 원도심 조성, 양질의 기업 유치, 청년희망도시 건설, 빛 없는 건강한 도시로의 체질개선 등을 공약했다.

문인 호남고속도 동광주IC~광산IC 확장 추진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30일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용봉IC 진출입로 개설을 포함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구간 확장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2762억원에서 4229억원으로 1467억원 53%가 증가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와 도로공사에 건의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로 인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 중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부순환도로와 신안교~광천1교간 도로를 우선 개설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 본격 선거운동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0일부터 본격적인 민생탐방에 돌입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에서 주철현 시장을 11.27%포인트 차로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권 예비후보는 한영주 여수갑 위원장 직무대행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과 함께 새벽 선거전략회의를 한 뒤 재래시장, 경로당, 농어촌항 등 순회하며 주민의견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시민들과 마음이 통하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더 듣겠다"며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록·임한필·장성수, 윤봉근 후보 지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영록·윤봉근·임한필·장성수 예비후보는 지난 30일 윤봉근(사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고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광산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행정 경험을 갖춘 윤봉근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광산 지역민은 구세력 적폐 청산과 미래세력의 등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깨끗한 정치·혁신의 정치를 이끌고 갈 구청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봉근 후보는 "민심과 당심은 부정한 세력과 단절하고 유통기한이 다 된 지역의 적폐를 꼭 청산하길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로서 본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평화당 영암군수 후보 박소영 공천



민주평화당 영암군수 후보에 박소영 전 목포부시장 직무대리가 공천됐다.

지난 30일 민주평화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후보와 광역의원 후보 3명 등 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 4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박 후보는 여성으로 목포시 부시장 직무대리·관광기획과장 등 요직을 지냈으며, 강하지만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이 강점이다. 평화당은 또 전남지역 광역의원 후보로 신안1선거구에 최경순 신안군도시계획 자문위원, 고흥1선거구에 송영국 민주당지회총연대 대표, 보성2선거구에 김선배 전 전남환경운동연합 의장을 공천했다.

/박정욱·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김창화·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초빙 공고

조선이공대학교는 1963년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사학 명문 대학입니다. 우리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계승 발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덕망과 리더십을 갖춘 제11대 총장을 모시고자 합니다.

초빙 대상

- 학교조선대학교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 조선이공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분으로서,
-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분

제출서류

- 가. 총장공모지원서
 - 나. 대학경영계획서
 - 다. 자기소개서
 - 라. 발전기금 납입영수증
 - 마. 범죄경력조회서
 - 바. 서약서
 - 사.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해당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 www.cst.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등록방법 및 마감

- 가. 등록 방법 : 방문 등록
- 나. 공고 및 등록 기간 : 2018. 5. 1(화) 09:00 ~ 2018. 5. 8(화) 17:00까지
- 다. 등록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대학본부 5층, 교수평의회 사무실)

기 타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문의처 ☎ 062-230-8170/8881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